

건강증진 II				번호:III - G - 6	
제 목	국문	의학과학생 "금연상담 실습"에 대한 평가연구			
	영문	The evaluation of education for "quitting smoking counseling" in medical stud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강숙, 이원철, 맹광호, 손혜현, 이정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ang-Sook Lee, Won-Chul Lee, Kwang-Ho Meng, Hye-Hyun Son, Joung-woo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이강숙	발표형식	구 연
	기타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임상에서 의사들은 개별적인 조언의 기회를 통하여 흡연환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많은 흡연 환자가 금연을 원하고 있고, 의사가 자신에게 금연을 권하기를 기대하며 금연권유에 호의적이어서, 의사의 짧은 권고가 금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과반수 정도 성공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흡연이 환자의 개인적 기호품이라 여겨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흡연하는 의사들은 특히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금연 방법에 자신이 없어서 금연 권고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국내 모든 사람들이 1년에 10 회정도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사로부터 금연 권고를 받는다면 흡연율을 낮추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p> <p>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에 관한 의사들의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을 통하여 비용-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일차 의료인이 흡연자의 금연상담 및 치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5 A로 제시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sk about tobacco use : 매 방문시 모든 환자의 흡연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라 2) Advise to quit : 모든 흡연자에게 명확하고 강력하면서 개별화된 금연 권고를 하라 3) Assess willingness to make a quit attempt : 흡연자의 금연시도 의지를 평가하라 4) Assist in quit attempt : 금연할 생각이 있는 환자에게 상담 및 금연 약물 치료로 도와라 5) Arrange follow up : 금연일로부터 첫 1주 이내에 재방문을 예약하라. <p>본 연구는 의학과 학생들의 금연상담 실습후의 평가를 통하여 향후 의과대학금연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기초조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p> <p>2. 연구방법</p> <p>우리나라 전국의 의과대학 6년 교과과정 중 금연 상담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처음으로 의학과 2학년 예방의학 역학강의 지난 한 학기 내내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여 금연 진료 지침에 따라 실습을 진행하였다. 첫 시간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흡연의 위해성, 국가의 금연정책, 담배</p>					

회사의 소송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후로부터 매주 과제로 학생 한 명당 주변의 흡연자 10명을 정하여 흡연력, 금연의도에 대한 단계(stage) 평가, 니코틴의존도 평가를 한 후 금연할 의지의 유무에 따른 차별화 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mail 자료, 워크시트, 표어 등을 만들게 하였다. 금연의지가 있는 2명을 선택하여 금연실습을 하는데, 흡연일지를 적게하고 금연 날짜를 정하여 금연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중증가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장단점, 성공과 실패, 문제점들에 대한 경험을 발표를 통하여 서로 나누었다. 발표후 실습과정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의학과 2학년 96명에 대하여 실습과정 평가, 교재평가, 강의시간평가에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가 약 30%씩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연교육 및 실습 진행에 따른 본인의 흥미도의 변화는 실습첫주, 수행중, 개인 발표후에 평가하였으며, 흥미없음에서 매우 흥미로움까지 10점으로 표시하게 하였는데 이를 삼등분하여 흥미가 낮은 부분이 34%, 가운데가 54%, 매우 흥미로운 쪽이 11%이었고,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금연교육 및 실습의 진행에 따라 본인의 느끼는 “유익성”에 대하여 똑같이 평가하였는데 실습종료후 개인 발표시 가장 유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일지작성에서는 50%, 금연 단계평가에서는 26%, 니코틴 의존도조사는 18%가 잘알고 있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각각 14%, 17%, 13%는 잘 알고 있지 않았으며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금연서약서 작성이후 4주 동안 수행한 개인 금연실습은 69%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금연실습의 수행은 7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연실습의 참여도는 76%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임상에서 의사의 짧은 금연권고가 흡연자에게 8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임상에서 진료시 환자의 흡연력에 대한 사항을 묻고(Ask) 항상 기록 하겠다 97%, 주치의로서 흡연환자를 맡았을때 금연권고를 98%가 하겠다고 하였으며,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알아보고 금연의지가 있는 경우 니코틴요법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90%가 하겠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주치의로서 내 환자가 금연 결심 후 금단증상이나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95%가 확인 하겠다고 하였다. 금연 실습이 의사로서 흡연환자를 금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90%가 응답하였고, 의사의 짧은 권고가 우리나라 흡연율을 낮추는데 데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서 8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4. 고 찰

금연 상담 실습전에 금연권고에 대한 태도 평가를 하지 않아 실습후의 태도변화를 알 수 없었지만 임상에서 주치의로서 흡연환자 금연권고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본 금연 상담 실습 교육은 긍정적인 면을 나타냈다.